

DAISHIN START

* START=STrategic Analysis and Refreshing Thoughts

엔달러 3차 랠리,
고점돌파는 어렵다

Focus ▶ 3p 참고

Strategist 오승훈 02.769.3803 oshoon99@daishin.com

엔화 약세는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와 일본공적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달러강세가 결합된 결과 엔달러는 전고점을 넘지 못할 것으로 전망. 헤드라인 물가가 3%를 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정책결정이 어렵고, 선제적 정책결정 시 기존 정책 효과를 평가절하하는 자기당착에 빠질 수 있기 때문. GPIF의 자산 운용 개혁(자산 배분 변화)은 엔약세 관점보다는 위험자산 수요 확대에 더 큰 의미가 있음. 자동차, 기계 등 엔저 피해주에 대한 역투자 전략이 필요한 시점

2014년 08월 27일 수요일

KOSPI

2068.05 ▲7.16 (0.35%)

	8/22	8/25	8/26
종가	2056.70	2060.89	2068.05
등락	12.49	4.19	7.16
등락폭(%)	0.61	0.20	0.35
거래량(백만주)	276	270	287
거래대금(십억원)	3,426	3,384	3,577
시가총액(십억원)	1,188,065	1,190,539	1,194,703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KOSDAQ

568.24 ▲3.84 (0.68%)

	8/22	8/25	8/26
종가	566.35	564.40	568.24
등락	3.83	-1.95	3.84
등락폭(%)	0.68	-0.34	0.68
거래량(백만주)	369	369	350
거래대금(십억원)	2,152	2,331	2,317

주: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총액은 보통주 기준으로 표시

증시일정 ▶ 2p

파생시황 ▶ 9p

Chart Alarm ▶ 10p

매매 및
자금동향 ▶ 16p

26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0.35%
상승한 2068.05에 마감

주간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8	19	20	21	22
EMU 6월 경상수지 (전기:9.3B, 발표:20.8B)	美 7월 소비자물가 (전기:0.3%, 발표:0.1%) 美 7월 주택착공건수 (전기:945K, 발표:1093K) 美 7월 건축허가건수 (전기:973K, 발표:1052K)	EMU 6월 건설생산 (전기:4.4%, 발표:-2.3%) 日 7월 수출 (전기:-1.9%, 발표:3.9%) 日 7월 수입 (전기:8.4%, 발표:2.3%) 日 7월 무역수지 (전기:-823.2B, 발표:-964.0B) 美 FOMC 회의록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312K, 발표:298K) 美 7월 기존주택매매 (전기:5.03M, 발표:5.15M) EMU 8월 복합 PMI 잠정 (전기:53.8, 발표:52.8) 獨 8월 제조업 PMI 잠정 (전기:52.4, 발표:52.0) 中 8월 HSCB 제조업 PMI 잠정 (전기:51.7, 발표:50.3)	
25	26	27	28	29
美 7월 신규주택매매 (전기:406K, 예상:429K) 獨 8월 IFO 기업환경 (전기:108.0, 예상:107.0)	美 7월 내구재주문 (전기:0.7%, 예상:7.1%) 美 6월 CS 주택가격 (전기:-0.31%, 예상:0.0%)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전기:298K, 예상:300K) 美 2Q 경제성장률(2차) (1차:4.0%, 예상:3.9%) 美 7월 미결제주택매매 (전기:-1.1%, 예상:0.5%)	美 6월 개인소득 (전기:0.4%, 예상:0.3%) 美 6월 개인소비 (전기:0.4%, 예상:0.2%) EMU 8월 소비자물가 예상 (전기:0.4%, 예상:0.3%) 韓 7월 산업생산 (전기:0.6%, 예상:2.1%) 韓 7월 선행지수순환변동치 (전기:101.5, 예상:--)
9/1	2	3	4	5
EMU 8월 제조업 PMI 최종 (전기:52.8, 예상:--) 獨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1.2%, 예상:--) 中 8월 제조업 PMI (전기:51.7, 예상:--) 中 8월 HSCB 제조업 PMI 최종 (전기:51.7, 예상:--) 韓 8월 수출 (전기:5.7%, 예상:--)	美 8월 제조업지수 (전기:57.1, 예상:--) 韓 8월 소비자물가 (전기:1.6%, 예상:--)	美 7월 제조업수주 (전기:1.1%, 예상:--) EMU 7월 소매판매 (전기:2.4%, 예상:--) EMU 2Q 경제성장률(잠정) (예비:0.7%, 예상:--) 美 베이지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8월 ADP 민간취업자변동 (전기:218K, 예상:--) 美 8월 비제조업지수 (전기:58.7, 예상:--) 韓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3.6%, 예상:--) ECB 회의	美 8월 비농업취업자변동 (전기:209K, 예상:--) 美 8월 실업률 (전기:6.2%, 예상:--) 獨 7월 산업생산 (전기:-0.5%, 예상:--)
8	9	10	11	12
EMU 9월 섹터스기대지수 (전기:2.7, 예상:--) 中 8월 수출 (전기:14.5%, 예상:--) 中 8월 수입 (전기:-1.6%, 예상:--) 日 2Q 경제성장률 최종 (잠정:-6.8%, 예상:--)		美 7월 도매재고 (전기:0.3%, 예상:--)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中 8월 생산자물가 (전기:-0.9%, 예상:--) 中 8월 소비자물가 (전기:2.3%, 예상:--) 韓 8월 실업률 (전기:3.4%, 예상:--)	美 8월 소매판매 (전기:0.0%, 예상:--) 美 9월 소비심리지수 (전기:79.2, 예상:--) EMU 7월 산업생산 (전기:0.0%, 예상:--) 韓 금통위
15	16	17	18	19
美 8월 산업생산 (전기:0.4%, 예상:--) 美 8월 설비가동률 (전기:79.2%, 예상:--)	美 8월 생산자물가 (전기:0.1%, 예상:--) 獨 9월 ZEW 예상 (전기:8.6, 예상:--) 美 FOMC	美 8월 소비자물가 (전기:0.1%, 예상:--) EMU 8월 소비자물가 최종 (전기:0.4%, 예상:--) 美 FOMC	美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美 8월 주택착공건수 (전기:1093K, 예상:--) 美 8월 건축허가건수 (전기:1052K, 예상:--) 日 8월 수출 (전기:3.9%, 예상:--) 日 8월 수입 (전기:2.3%, 예상:--)	美 8월 선행지수 (전기:0.9%, 예상:--)

주: 날짜는 해당국의 Local Time 기준이며 예상치는 Bloomberg 기준, K는 천, M은 백만을 의미
미국 지표인 경우 전기대비, 다른 국가들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데이터를 나타냄

투자포커스

엔달러 3차 랠리. 고점 돌파는 어렵다

Strategist 오승훈 769-3803 oshoon99@daishin.com

3차 엔저와 대응 전략

엔저에 대한 공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엔화 약세는 8월 5일 GPIF(일본공적연금)의 주식비중 한도 폐지에서 시작되어 일본은행 총재의 잭슨홀 연설 이후 한층 더 가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104엔대에 진입한 현시점에서의 고민은 엔달러가 전고점(종가 기준 105.3, 장중기준 107.13)을 돌파할 것인가에 몰려있다. 전고점을 뚫고 간다면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수출주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기존 고점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엔약세 피해주에 대한 역발상 투자를 고민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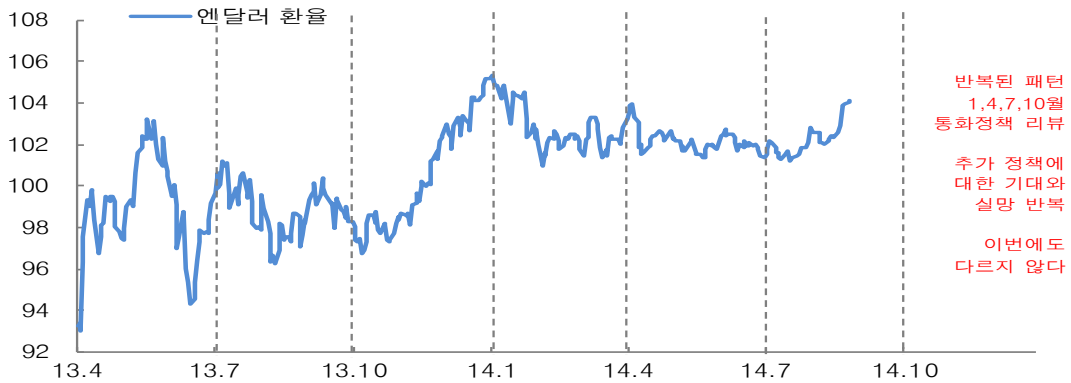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전고점을 넘는 엔달러 상승(엔화약세)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 엔달러의 추가 상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추가 정책의 가시화이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3%대의 고물가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추가해 물가 상승을 가속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추가 정책의 판단 시점은 소비세인상에 따른 물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초가 더 적당하다. 오히려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리뷰가 이루어지는 1월, 4월, 7월, 10월이면 반복되었던 기대와 실망의 사이클이 반복 될 가능성이 높다[그림1].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7월 처럼 10월 금정위에서도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정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또 다른 엔약세 요인이 되었던 GPIF의 자산 운용 개혁(자산 배분 변화)은 엔약세 관점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둘 수 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엔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시 수혜주(내수, 서비스등 기존주도주)에 대한 보유와 피해주(수출주)에 대한 역투자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엔화 약세에 대한 우리의 뷰는 직전 고점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105엔 이상에서는 피해주에 대한 역투자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2차 엔저시기(2013년말) 엔달러가 정점에 이르는 약 2주간 역발상 투자는 좋은 선택 중 하나였다.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인 엔약세 구간의 피해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반복되는 엔화 사이클. 1,4,7,10월 통화정책 회의 전 정책기대로 상승, 회의 이후 실망감으로 반락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또 다시 정책 기대에 의존하는 3차 엔저

현재 엔화 약세는 세가지 변수가 결합되어 있다. 내부적으로는 10월 금정위에서 추가적인 정책을 더할 것이라는 기대와 GPIF의 자산구성 변화(주식, 해외투자 비중 확대),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가 엔달러 환율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엔달러의 추가 상승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추가 정책의 가시화이다. 그러나 신속한 정책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3%대의 고물가 상황에서 양적완화를 추가해 물가 상승을 가속시키는 정책적 판단을 신속히 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6월말 일본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6%, 근원물가는 2.3%, 신선식품 제외물가 역시 3.3%로 높아졌다. 일본은행은 헤드라인 물가기준 2%, 근원물가 1% 이상을 목표로 잡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더 강한 정책을 가져올 경우 기존 정책이 효과가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 있다. 추가 정책의 판단 시점은 소비세인상에 따른 물가효과가 사라지는 내년 초가 더 적당하다.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는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리뷰가 이루어지는 1월, 4월, 7월, 12월이면 반복되어 왔다. 회의전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지만 현행 유지의 정책 결정이 반복되면서 엔달러 환율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7월에 기대와 달리 추가적인 정책을 시행하지 못했던 것처럼 10월 금정위에서도 일본은행의 추가 완화 정책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 아직 불확실한 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넘는 엔달러 상승이 나타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위험자산 수요를 예고하는 GPIF(일본 공적연금)의 자산배분 변화

또 다른 엔약세 요인이 되었던 일본 공적연금(GPIF, 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 행정법인)의 자산 운용 개혁(자산 배분 변화)은 엔약세의 관점보다는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가 확대된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둘 수 있다.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에 긍정적인 재료가 될 수 있다.

세계 최대 규모인 GPIF는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적립금 운용을 담당하고 있다. 2013년말 기준 운용규모는 126조엔에 달한다. GPIF가 주목받는 이유는 빠르면 9월 중 자산운용 방식(자산배분 비중)을 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공적연금 운용개혁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인 신성장전략 중 하나이다.

지난 6월 공적연금 운용위원장은 새로운 자산배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밝힌 바 있다. 국내채권 비중을 현행 60%에서 40%로 20% 낮추는 반면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해외채권의 비중은 현재보다 5% 높이고, 대체투자 5%를 신설하는 내용이다[그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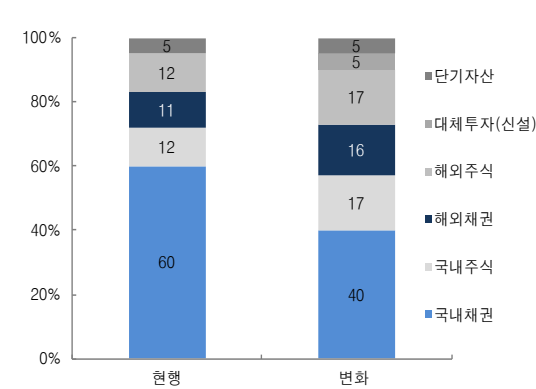
2013년말 시장가치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처럼 자산배분 비중이 바뀔 경우 채권에서 위험자산으로 20조엔(1960억달러)에 달하는 교체수요가 발생한다.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주는 만큼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8월 5일 열린 GPIF이사회는 국내주식 보유 상한선을 폐지했다. 국내주식 비중 기준은 12%이며, 상하한 한도범위($\pm 6\%$)를 감안하면 6%~18%이다[그림3]. 2013년말 실제 국내 주식비중이 16.5%였던 점을 감안하면 최대 한도인 18%를 넘어서면서 보유 상한선 폐지가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국내주식 비중을 18%를 가정했을 경우 20%까지 국내 주식비중을 늘리면 총 4조엔이 일본 주식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국내 주식을 최대 한도까지 늘릴 경우 8조엔 이상 국내 주식에 신규투자 될 수 있다. 해외 주식의 경우도 비중을 20%까지 늘릴 경우 3.7조엔, 최대 6.3조엔까지 해외 주식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해외주식형의 경우 2013년말 투자금액은 19.7조엔이다. 이중 액티브 비중은 11%이며 나머지 89%는 패시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패시브 투자는 모두 MSCI 선진국 지수를 벤치마크로 하고 있다. 해외 주식형 중 액티브 운용 규모는 2.1조엔이며 이중 이머징 마켓에 투자되는 금액은 1615억엔으로 미미한 편이다(전체 해외주식형의 0.8%, 해외주식 액티브형의 7.7% 수준).

4월부터 7월까지 일본계 자금이 4개월간 1.5조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다. GPIF의 해외 주식비중 확대가 확정적인 상황에서 신흥시장 비중을 얼마나 늘릴지에 따라 한국에 유입되는 일본계 자금의 지속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그림 5].

그림 2. 일본 공적연금 자산비중과 변화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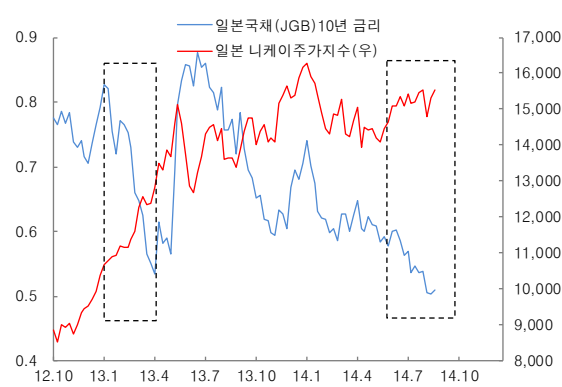
자료: GPIF,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013년말 기준대비 실제 자산 비중

자산군	기준 비율 (%)	허용 Range (%)	2013년말 실제비중	2013년말 Market value (bil yen)
국내채권	60	±8	55.43	70,159.6
국내주식	12	±6	16.47	20,846.6
해외채권	11	±5	11.06	13,996.1
해외주식	12	±5	15.59	19,732.6
단기자산	5		1.46	1,842.2
	100.0		100.0	126,5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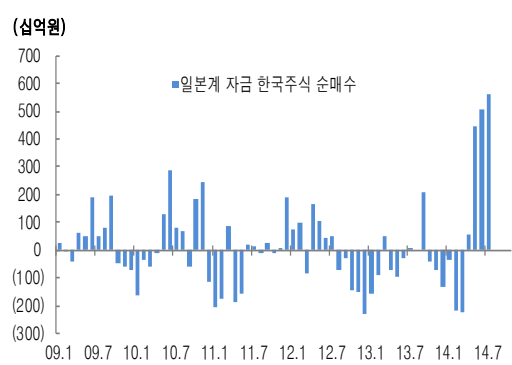
자료: GPIF,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일본 주가와 채권 동반 강세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일본계 자금 한국주식 적극 매수



자료: 금융감독원,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엔저 국면의 업종 수익률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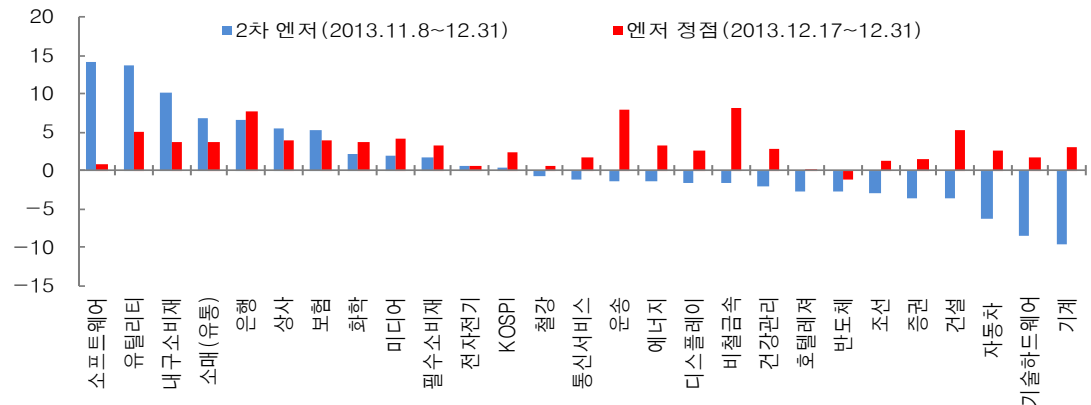
*엔저 국면의 수익률 상위 업종 : 내수, 서비스 업종

2차 엔저가 진행된 2013.11.7~12.31일의 업종별 수익률을 보면 소프트웨어, 유틸리티, 내구소비재, 유통, 은행이 수익률 상위에 포진되어 있다. 내수 및 서비스업종이 다수 포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과의 경합도가 높은 기계, 자동차 업종이 수익률 하위에 포진되어 있다.

다만 엔달러가 104엔에 진입하면서 수익률 부진 업종의 회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엔달러 상승이 전고점에서 막히게 되면서 역투자 전략이 유효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비철금속, 운송, 건설, 기계, 자동차 업종의 수익률 회복이 빨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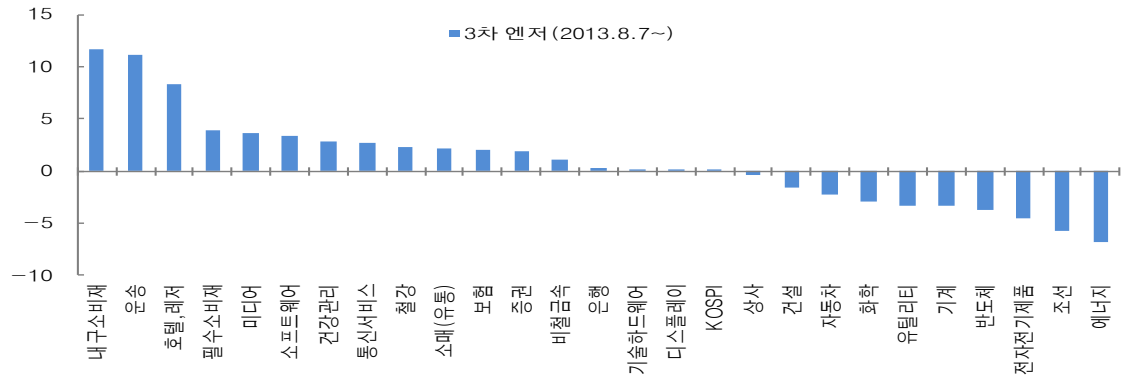
3차 엔저가 진행되는 현재도 2차 엔저 국면과 유사한 수익률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8월 7일 이후 수익률을 보면 내구소비재, 운송, 호텔레저, 소프트웨어가 수익률 상위에 포진되어 2차 엔저시기와 유사한 업종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2차 엔저 주도 업종 (내수, 서비스). 엔달러 정점 시기 수익률 상위 업종은 비철금속, 운송, 은행, 건설, 기계, 자동차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3차 엔저 업종별 수익률 : 2차 엔저의 수혜주와 크게 다르지 않아(내구소비재, 소프트웨어, 필수소비재)



자료: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업종선택 : 엔저 피해주에 대한 역투자전략

엔달러 환율이 104엔대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에 대한 보유와 피해주에 대한 역투자전략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엔저에 대한 우리의 보는 직전 고점을 넘는 엔저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엔저 피해주에 대한 역투자 전략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판단한다. 2차 엔저시기 엔달러가 정점에 이르는 약 2주간 역발상 투자는 좋은 선택 중 하나였다. 자동차, 기계 등 전통적인 엔약세 구간의 피해업종에 대한 분할 매수 전략을 권고한다.

[참고] 엔저 업종별 영향

주력 수출시장에서의 일본과 경쟁도, 주력품목, 비가격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판단해 보면 자동차, 기계, 가전, 음식료 분야가 엔저의 부정적 영향이 큰 편이다. 자동차업종의 경우 일본 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엔화 약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가 크고, 일본의 가격전략에 따라 방어적으로 대응해야하는 부담이 크다. 수출 경쟁도가 높은 기계 업종과 국내 생산제품을 일본에 수출하는 음식료(주류 및 음료)업종도 엔화 약세의 부정적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

표 1. 엔저에 따른 업종 영향한국 주력 수출 품목별 일본과의 경쟁 구도

업종	일본과의 경쟁 환경		엔저의 영향
자동차	경쟁시장	미국, 유럽, 중동	채산성 악화, 수출 감소 소형차 한국 수출 비중 높고, 수요의 가격탄력성 높아 *일본차의 가격 인하 여부와 대응
	경쟁품목	소형차, 중/대형차	
	기타	한국 해외생산 비중 50%, 일본 61%	
가전	경쟁시장	미국, 중국 유럽	채산성악화, 가격인하 압력 증대, 수출 소폭 감소
	경쟁품목	디지털TV, 조명기기, 음향기기부품	
	기타	프리미엄 완제품/부품에서 경합 관계	
섬유	경쟁시장	중국, 베트남	채산성악화, 수출소폭 감소
	경쟁품목	화섬사/화섬직물	
	기타	주력 수출시장에서 경합도 높아	
철강	경쟁시장	중국, 아세안	주요시장에서 한일간 높은 수출 경합도 가격인하 압력 증대 => 수출확대 어려움 대일 수입 증가(국내 생산 위축)
	경쟁품목	판재류(평판압연)	
	기타	수출의 가격탄력성 > 수입의 가격탄력성	
정보통신기기	경쟁시장	중국, 미국, EU	일본대비 경쟁우위 확보 스마트폰 해외생산 비중 높아 영향 미미
	경쟁품목		
	기타		
디스플레이	경쟁시장	중국	일본의 시장점유율 미약. 한일간 경쟁관계 미약 소재 및 장비의 대일수입은 수익성 개선에 기여
	경쟁품목	모바일 기기용 소형패널	
	기타		
반도체	경쟁시장	중국	한국의 경쟁우위 확보 제품 차별화로 영향 미미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비중 35.8%(웨이퍼 가공처리 공정장비)
	경쟁품목	낸드플래시	
	기타		
석유화학	경쟁시장	중국	직접적 영향은 미미(제품 차별화) 일본은 고부가 하이엔드 위주 한국은 범용제품 위주.수출 주력제품 상이
	경쟁품목	탄화수소유도체, 합성고무, 합성섬유	
	기타		
일반기계	경쟁시장	미국, 중국	대일 수입의존도 높은 핵심부품 수입단가 인하 효과 일본산 수입비중 30%, 수입증가 우려(대체효과) 수출 둔화(일본과의 경쟁 심화)
	경쟁품목	건설기계, 공작기계	
	기타		
조선	경쟁시장	대만 노르웨이, 미국	수출품목 차별화로 영향 미미 기자재, 소재의 수입단가 하락 긍정적 부품소재 대일 의존도 30% => 비용 절감 효과
	경쟁품목	일반상선, 해양플랜트	
	기타	일본은 벌크선이 주력	

자료: 산업연구원 '엔화 약세와 한국산업' 인용

파생시황

선물거래동향				
구분	9월 선물	12월 선물	KOSPI200	KOSPI
시가	266	267.3	265.51	2069.07
고가	267.1	268.45	266.07	2072.42
저가	265.35	266.85	264.97	2065.15
종가	266.1	267.6	265.14	2068.05
전일대비	0.7	0.85	0.68	7.16
(%)	0.26	0.32	0.26	0.35
거래량(계약)	120,633	628	59,831	284,881
거래대금(백만)	16,065,660	84,120	2,633,575	3,620,635
미결제약정	118,602	7,262		
전일대비	669	154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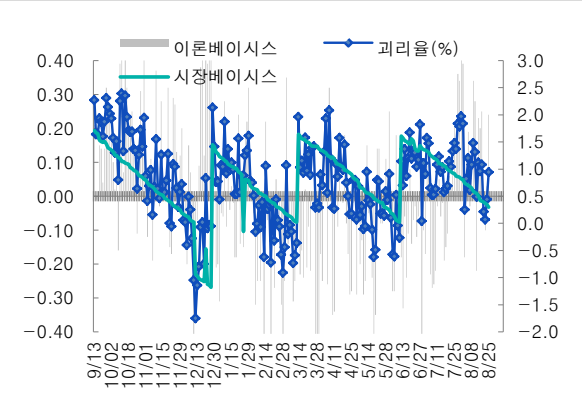
과리도				
구분	이론가격	과리율	종가Basis	평균Basis
최근월물	265.44	0.22	0.96	0.88
차근월물	267.03	0.18	2.46	2.36

프로그램매매동향									
(단위:백만원,%)									
구분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전체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08/22	7,202	6,454	-749	573,902	777,554	203,652	581,104	784,008	202,904
08/25	7,839	42,886	35,047	513,327	557,840	44,513	521,166	600,726	79,559
08/26	13,480	21,935	8,455	703,407	702,060	-1,348	716,887	723,994	7,107

옵션거래동향				
(단위: 계약, 배,%)				
구분	CALL	PUT	합계	P/C Ratio 당일
거래량	685,276	706,840	1,392,116	1.03
거래대금	296,446	252,468	548,914	0.85
미결제약정	407,268	401,245	808,513	0.99
내재변동성	10	10	10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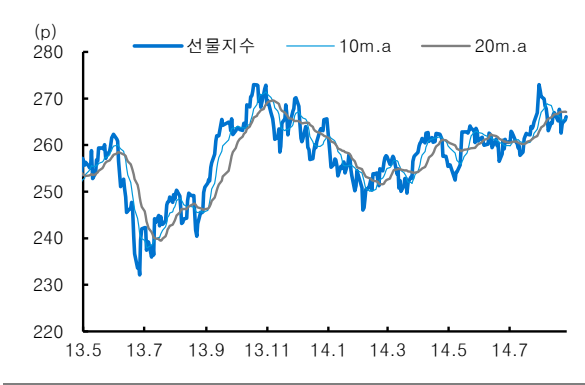
역사적 변동성			
(단위: %)			
구분	당일	52w High	52w Low
20일	19.53	26.95	7.87
30일	17.86	26.05	8.18
60일	16.12	23.55	10.82
90일	16.90	22.30	13.45

현선물 베이스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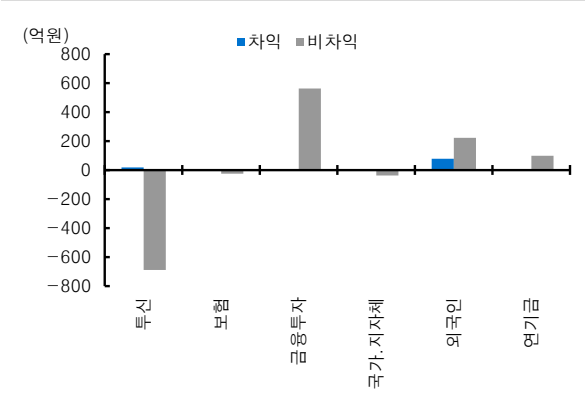
선물지수 추이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스프레드			
구분	종가	전일대비	거래량
J9JCS	1.45	0.00	185
J9J3S	-	-	-

전일 주체별 프로그램 매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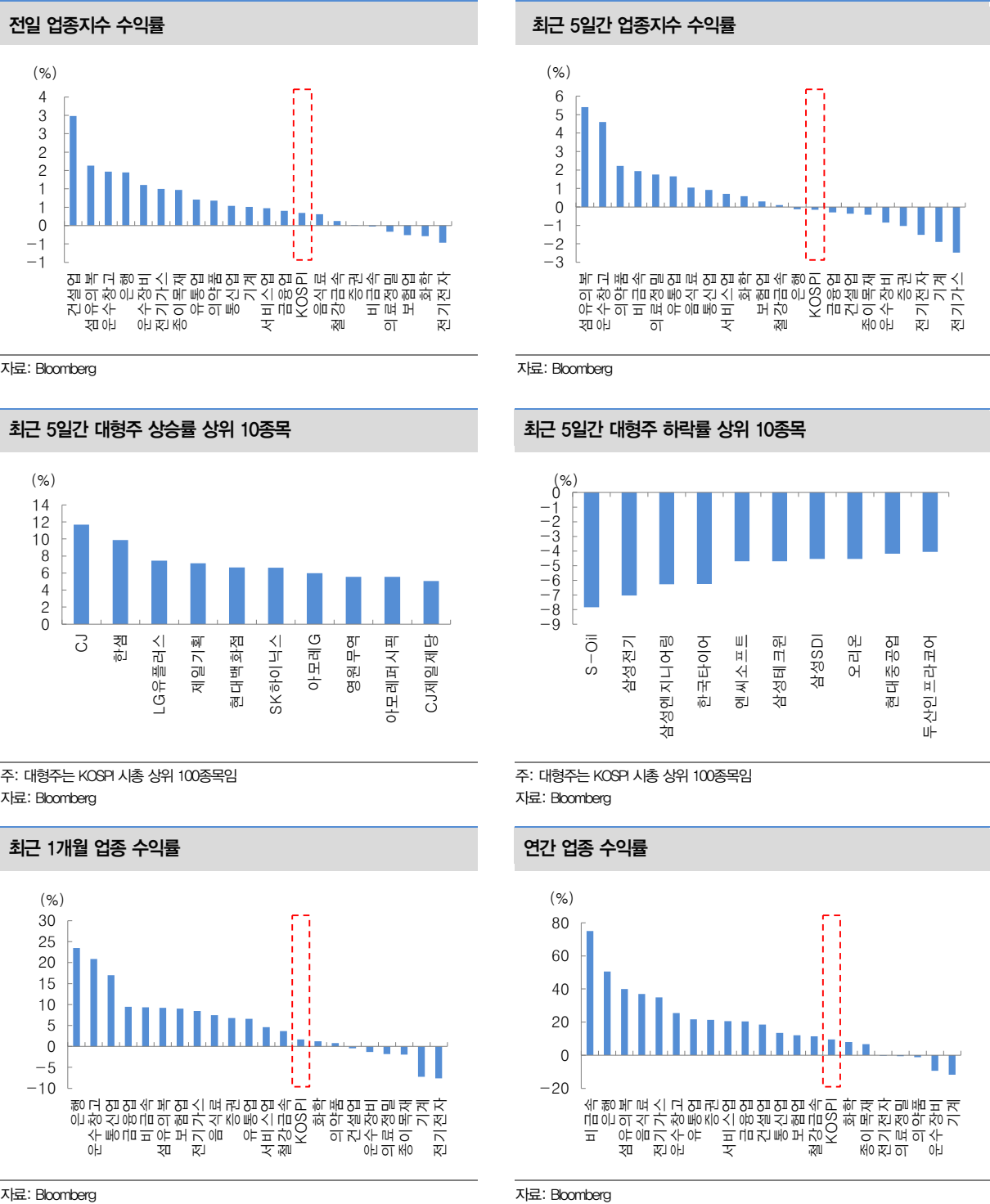


자료: KOSCOM,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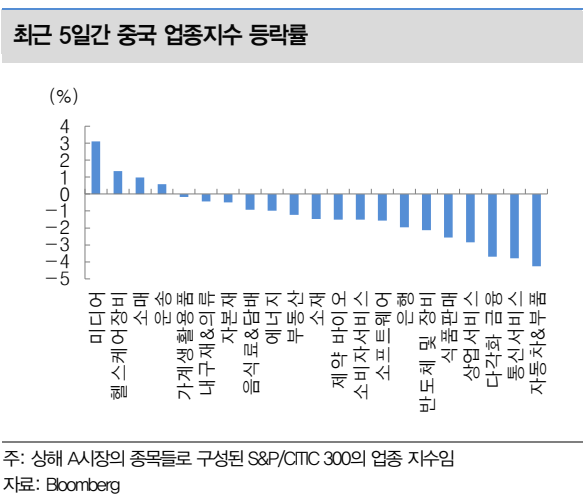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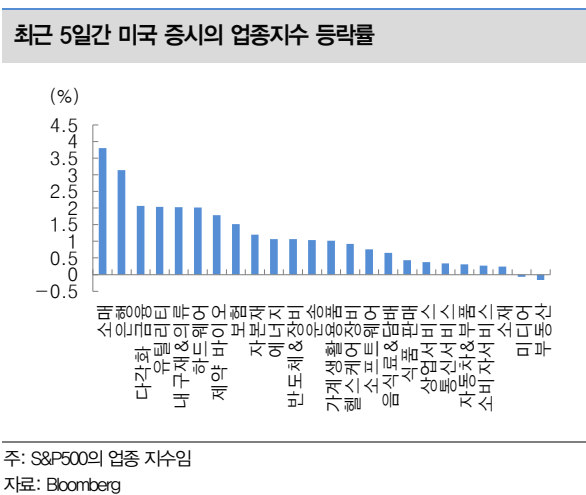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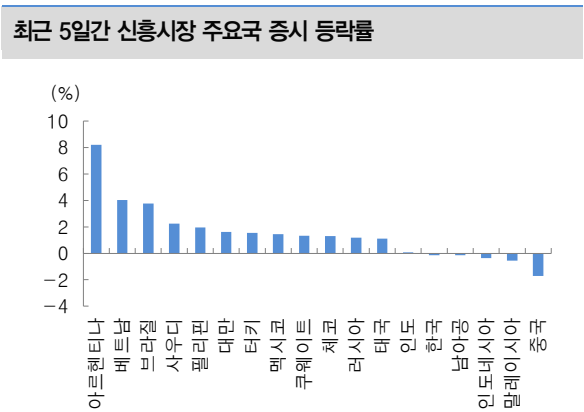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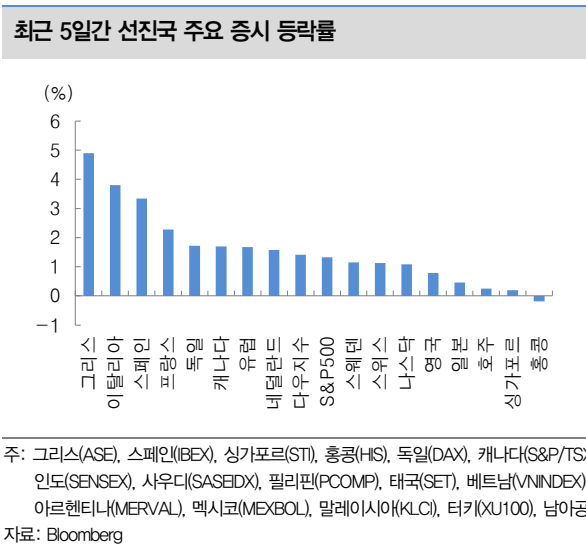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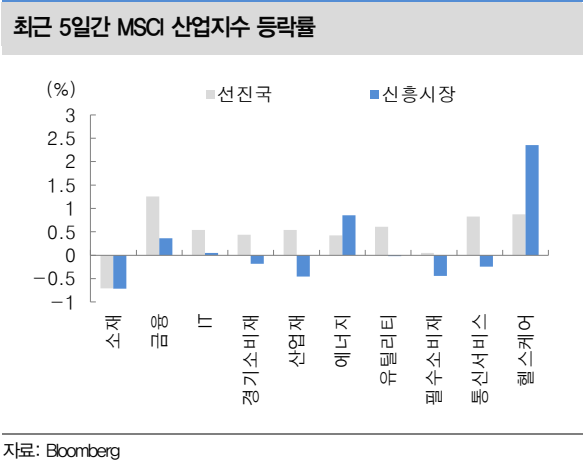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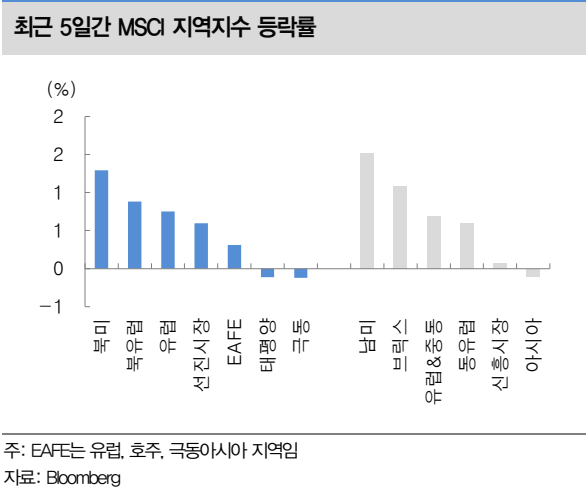
Chart Alarm

01. 주가 등락률
- 26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에 힘입어 전일대비 0.35% 상승한 2068.05에 마감
 - 장 마감 기준 외국인은 1000억원, 기관은 401억원 순매수했으며 개인은 1284억원 매도우위.

▶ 국내 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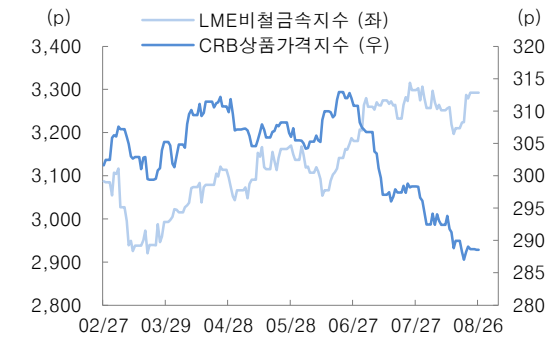
▶ 해외 증시



02. 상품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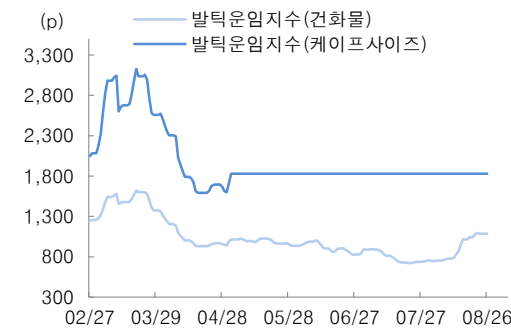
-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원유(WTI) 10월 인도분은 전일대비 0.33%(0.31달러) 떨어진 배럴당 93.65달러로 장을 마감
- 금 12월 인도분은 전일대비 0.1% 떨어진 온스당 1277.3달러에 마감

CRB상품 가격과 LME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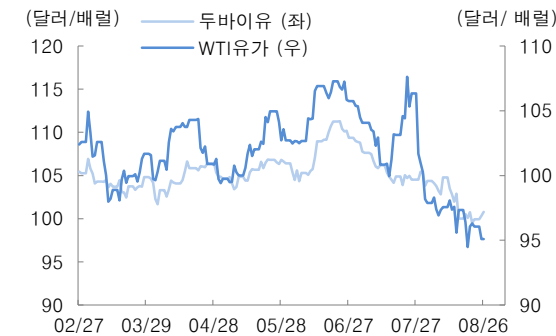
주: LME비철금속지수는 알루미늄, 전기동, 납, 니켈, 주석, 아연의 현물시세
자료: Bloomberg

발틱 운임 지수(BDI, B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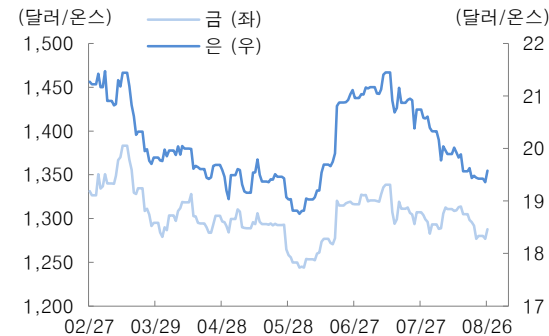
주: 케이프사이즈는 15만DWT 이상 최대 용량의 벌크선임
자료: Bloomberg

국제유가(WTI, 두바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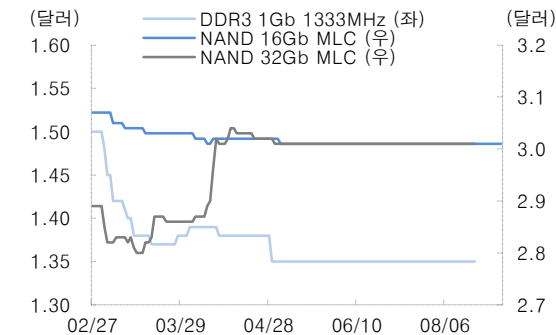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금, 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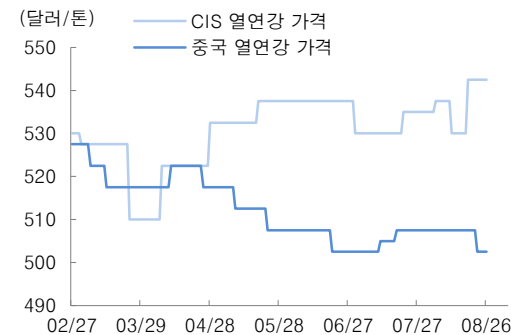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DRAM과 NAND 현물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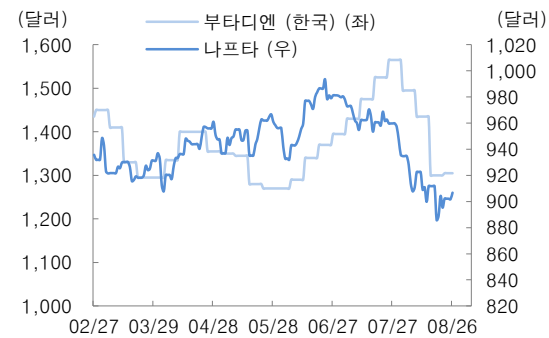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철강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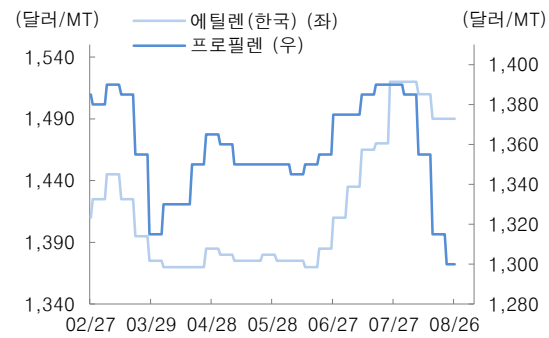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나프타, 부타디엔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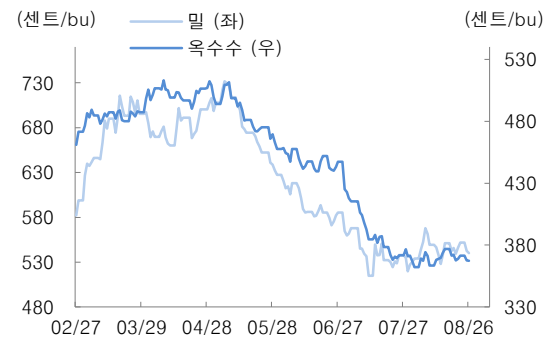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에틸렌, 프로필렌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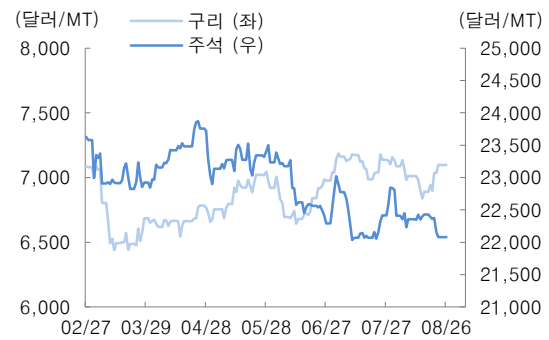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밀, 옥수수 가격



자료: Bloomberg

구리, 주석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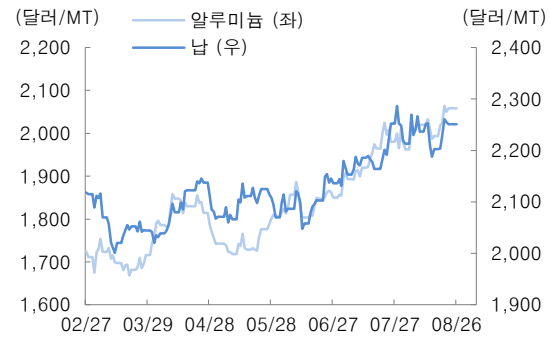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니켈, 아연 가격



자료: Bloomberg

알루미늄, 납 가격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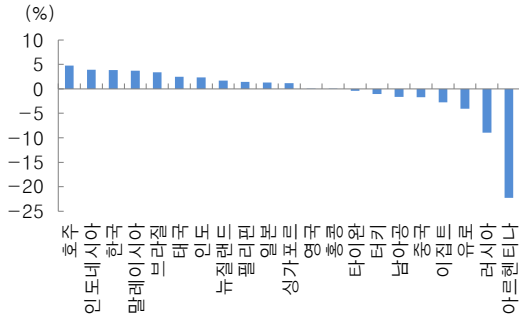
03. 금융지표

환율/금리/리스크 지표

-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4원 내린 1,016.8원에 마감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029% 내린 2.540%에 거래를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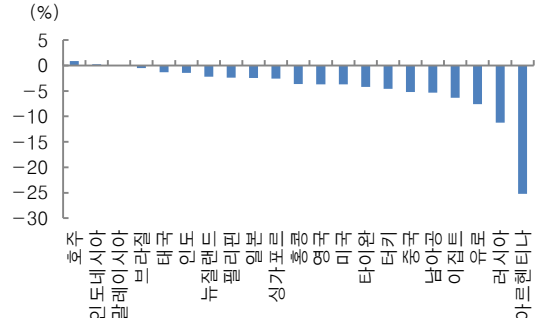
▶ **이해**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달러 대비)



자료: Bloomberg

주요국 기준환율의 2014년 절상률 (원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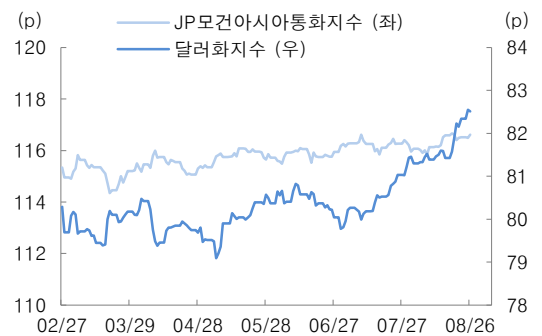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원/달러, 원/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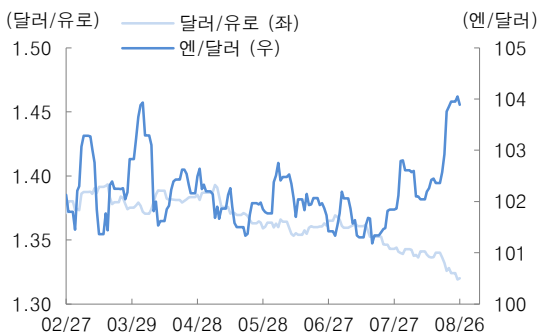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달러화 지수와 JP모건 아시아 통화지수



자료: Bloomberg

달러/유로, 엔/달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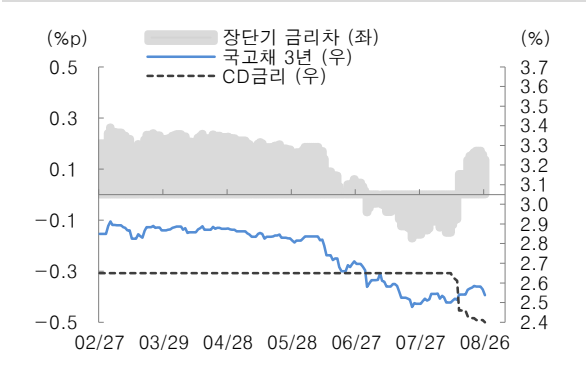
중국 위안화 현선물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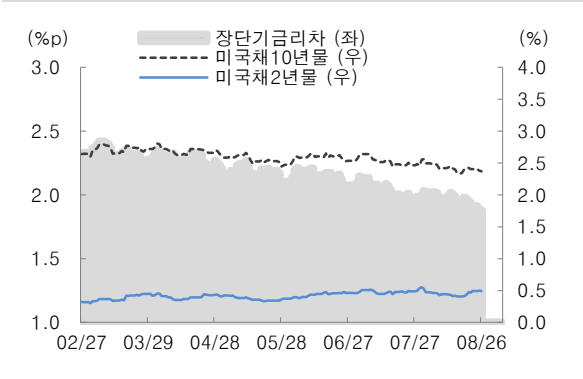
▶ 금리 및 리스크 지표

국고채3년, CD금리와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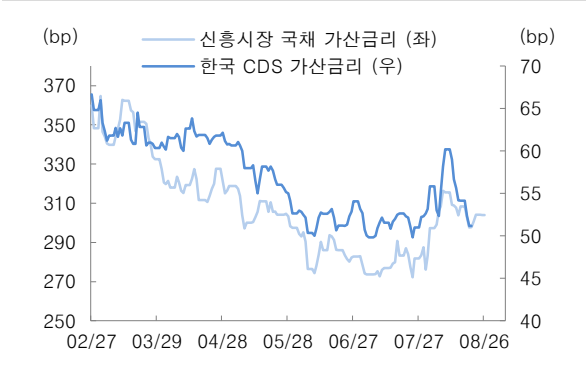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국 국채 10년물, 2년물과 장단기 금리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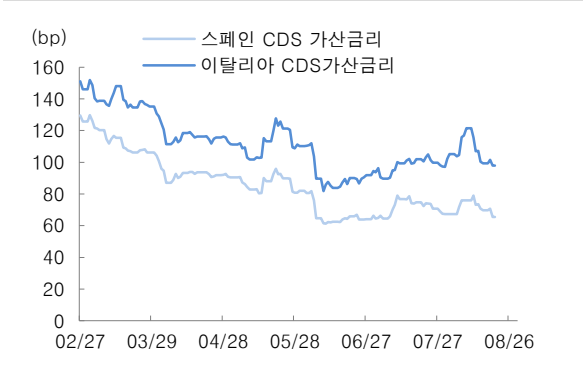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신용시장 국채 가산금리와 한국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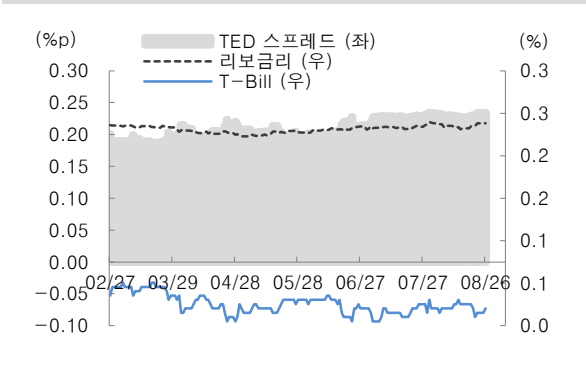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스페인, 이탈리아 CDS 가산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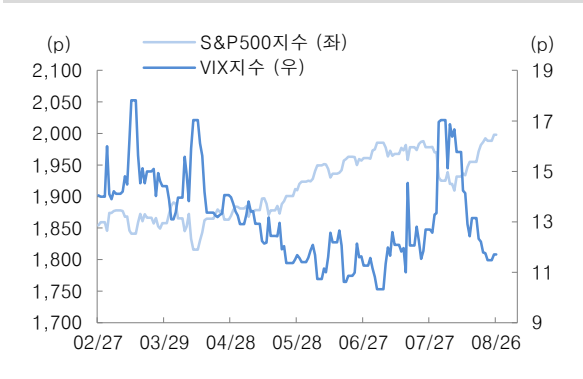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TED 스프레드



자료: Bloomberg

S&P500 지수와 VIX 지수



자료: Bloomberg

매매 및 자금 동향

▶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유가증권시장: 순매수 금액) (단위: 십억원)

구분	8/26	8/25	8/22	8/21	8/20	08월 누적	14년 누적
개인	-128.3	-62.9	-33.9	381.7	94.7	665	-801
외국인	100.9	-26.8	105.3	2.5	234.5	1,490	7,795
기관계	38.7	94.6	-48.3	-372.2	-238.4	-1,563	-5,797
금융투자	50.2	2.6	-34.9	-261.5	-38.1	-220	-3,002
보험	4.7	-4.4	-12.2	-25.3	-16.8	-387	670
투신	-80.4	56.2	10.5	-30.4	-106.8	-639	-3,533
은행	-21.1	-8.4	-6.0	-0.8	-32.3	-199	-1,622
기타금융	-0.7	-1.8	2.6	1.1	-12.0	-17	-638
연기금	65.1	30.0	-5.7	-4.4	19.8	172	3,627
사모펀드	23.2	20.1	0.8	-44.5	-55.1	-77	-518
국가지자체	-2.2	0.3	-3.5	-6.5	3.0	-196	-781

자료: Bloomberg

▶ 종목 매매동향

유가증권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삼성전자	50.9	GKL	12.0	우리금융	19.0	삼성전자	72.2
SK 하이닉스	16.4	우리금융	10.2	제일기획	13.6	현대모비스	9.0
현대제철	12.4	현대중공업	10.1	CJ 제일제당	13.6	한솔테크닉스	8.4
LG 유플러스	12.3	기업은행	10.1	KB 금융	10.5	POSCO	8.3
현대모비스	11.6	호텔신라	9.9	기업은행	10.0	삼성 SDI	7.7
강원랜드	10.5	SK 텔레콤	9.0	SK 텔레콤	9.0	아모레퍼시픽	7.4
SK 이노베이션	9.6	LG 생활건강	6.4	NAVER	8.1	SK 하이닉스	6.5
POSCO	9.3	아모레퍼시픽	6.3	LG 유플러스	6.7	현대제철	6.4
현대건설	8.3	KT&G	5.4	기아차	6.7	삼성전기	6.4
LG 디스플레이	7.1	LG	5.1	대우조선해양	6.6	롯데케미칼	6.0

자료: KOSCOM

코스닥 시장 (단위: 십억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순매수	금액	순매도	금액
메디톡스	5.1	다음	9.2	한국토지신탁	4.1	메디톡스	5.4
게임빌	4.7	파라다이스	6.3	게임빌	3.3	다음	4.8
KT 뮤직	3.3	서울반도체	2.5	리홈쿠첸	2.3	CJ E&M	3.3
컴투스	2.6	포스코 ICT	1.9	에스엠	2.2	KG 모빌리언스	3.1
마크로젠	2.2	셀트리온	1.2	CJ 오쇼핑	2.1	KT 뮤직	1.5
위메이드	2.0	사파이어테크놀로지	1.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2.1	성우하이텍	1.5
뷰웍스	1.7	원익 IPS	1.1	농우바이오	1.5	로엔	1.4
GS 홈쇼핑	1.6	바이로메드	0.9	삼보모터스	1.5	조이맥스	1.3
KH 바텍	1.5	처버이오텍	0.9	모두투어	1.2	뷰웍스	1.2
CJ E&M	1.5	리홈쿠첸	0.8	바이로메드	1.1	포스코 ICT	1.2

자료: KOSCOM

▶ 최근 5일 외국인 및 기관 순매수, 순매도 상위 종목

외국인						기관					
(단위: %, 십억원)						(단위: %, 십억원)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순매수	금액	수익률	순매도	금액	수익률
현대차	102.0	0.0	SK 텔레콤	48.9	0.7	SK 하이닉스	62.1	3.0	삼성전자	254.1	-3.1
삼성전자	95.2	-3.1	호텔신라	42.9	-1.9	SK 텔레콤	49.1	0.7	현대차	93.7	0.0
POSCO	64.8	-1.0	현대중공업	23.5	-1.1	현대하이스코	45.3	-5.5	SK 이노베이션	66.8	2.8
SK 하이닉스	59.8	3.0	KT&G	23.3	-0.8	KCC	31.4	0.3	현대모비스	58.5	-1.0
현대모비스	50.4	-1.0	아모레퍼시픽	22.9	6.5	LG 유플러스	27.1	7.5	S-Oil	51.3	-0.7
현대제철	39.2	-1.8	KCC	21.8	0.3	대한항공	24.5	9.7	한국전력	49.6	-0.9
SK 이노베이션	38.0	2.8	LG	21.0	-0.8	KT	24.2	-1.4	현대제철	39.4	-1.8
LG 디스플레이	29.0	-0.4	GKL	20.9	3.2	LG	24.0	-0.8	삼성 SDI	37.5	-3.3
신한지주	27.8	-0.8	아모레퍼시픽	20.4	6.4	우리금융	23.1	1.1	두산인프라코어	32.0	-2.1
강원랜드	26.4	5.2	기아차	18.7	-2.1	LG 생활건강	20.7	6.0	POSCO	31.4	-1.0

자료: KOSCOM

▶ 아시아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구분	8/26	8/25	8/22	8/21	8/20	08월 누적	14년 누적
한국	122.6	-51.3	97.5	11.8	231.4	1,378	8,239
대만	109.7	145.6	484.5	61.0	178.9	910	12,120
인도	0.0	0.0	49.3	80.7	50.4	915	12,830
태국	4.5	-8.6	20.7	0.6	15.1	67	-907
인도네시아	-17.3	-15.1	6.1	35.0	44.1	-88	4,867
필리핀	3.3	0.0	-6.5	0.0	8.3	112	1,121
베트남	3.3	5.1	3.5	3.6	-3.1	-50	220

주: 대만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현황은 TWSE(Taiwan Stock Exchange) + GTSM(Gre Tai Securities Market)의 합산 데이터임. GTSM은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되는 General Board와 프리보드 역할을 하는 이머징 스타크 등으로 구분. 이머징 스타크 마켓은 General Board로 건너가기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

자료: Bloomberg, 각국 증권거래소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